감사도 하는 체질적 불평분자

(민11:1~3)

1.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2.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3. 그 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감사도 하는 체질적 불평분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감사도 하는 체질적 불평분자'
체질적인 불평분자가 감사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체질적 불평분자의 감사가 이상하다는 것은, '체질적'이라고 하는 이 체질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체질적 불평분자'라는 것은 불평이 강물이 흐르듯이 지속되는 것인데 이 불평분자가 감사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감사를 하면 좋은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감사이고 불평하는 것과 똑같은 성분과 유전자를 가진 것으로 실제로는 불평을 내놓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 체질적 불평분자가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을 하면 옆 사람도 피곤하고 당사자도 피곤하고 참 피곤한 일입니다. 지금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불평한다면 행복하긴 글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나옵니다.
이 '원망하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원망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원망은 불평과 같은 의미입니다. 한두 번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불평으로 일관되는 삶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고 체질이 불평으로 배어있음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원망의 이유나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뒷받침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질적으로 불평분자인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일 보겠습니다만 연이어 만나만 먹게 되는 것에 대한 불평이 나옵니다. 이 불평도 식생활 때문이었다는 것보다 불평의 체질에 근거한다고 보는 게 맞는데 이 점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나 이야기에 대한 불평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이 불평은 식생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체질이 불평분자이기 때문에 만나만 먹는 식생활의 불평을 표출하는 계기

로 삼았다는 이야기로 앞에서 이유도 없고 꺼리도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부장님이 집에서 아내와 싸우고 나오셨습니다. 화가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엉뚱하게 김 과장에게 닥치는 대로 화를 표출합니다. 화가 마음에 차 있으면 화를 나게 하는 일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속에 있는 화를 분출할 계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체질적 불평분자는 항상 마음에 불평에 차 있으면서 불평을 표출한 꺼리를 찾아 헤매는 자들인데 이들도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질적 불평분자로 매도해 버리기에는 의문이 듭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법궤를 앞세우고 출발해서 불과 삼일 길을 갔다는 이야기가 앞장에 나왔습니다. 아무리 광야길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라고 믿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13개월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는데 불과 삼일이 지나면서 체질적으로 불평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삼일 동안 몇 번 불평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삼일이라는 시간이 한 인격이 습관적인 체질이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의 체질이라고 말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은, 출애굽에서부터의 이스라엘의 여정을 뒤따라 가보면 출애굽이나 홍해를 건널 때 등 때때로 감사도 잘 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에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서 지금의 원망과 불평이 바로 체질이라고 말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체질적으로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당하는 상황과 형편이 그럴 만 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불평을 할 때에도 내 체질이 불평분자인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으니 불평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그러한 변호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막이라는 상황이 여차하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처럼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살아도 불평이 끊이지 않는데 사막에서 오죽했겠습니까만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때때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적인 사건들 앞에서 감사했다고 해서 그들이 체질적인 불평분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삼일이 불평분자가 되기에 부족했다면 본래부터 불평분자였던 자들이 드러났는데 들여다보니 그들에게도 감사의 시절이 곳곳에 있었다는 것이고, 놀라운 사실은 체질적인 불평분자들도 감사를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감사의 성분을 분석해보면 원망과 불평의 성분과 똑같은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양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지 신앙적이고 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마음속의 상태는 불평과 원망을 할 때와 똑같은 상태라는 것이지요. 출애굽 때의 열 가지 재앙의 기적,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기적, 나와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군대를 홍해가 다시 합쳐져서 전멸시킨

기적,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계약을 맺으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한 경우에도 본문의 이스라엘이 체질적으로 불평분자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연관을 지으면 불평이 체질인 상태에서 이 기적들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기적 앞에서 감사를 할 때에도 그 감사의 내용을 다 분해해보면 지금의 불평과 원망과 똑같은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불평과 감사라는 정반대의 성분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느냐는 것인데 그 공통적인 성분의 내용이 바로 '탐욕'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탐욕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체질적으로 불평분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단한 기적들 앞에서 감사할 때조차도 감사의 성분이 탐욕이었고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성분도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불평의 체질을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진노하신 하나님이 "진영 끝에 불을 사르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굳이 진영 끝을 불로 사르실까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후에 에덴의 경계를 불 칼로 지키시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경계에 붙은 불'은 '하나님과 분리됨'을 뜻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체질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더 엄격하게 말하면 이미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분리되었음으로 그 결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고, 모순되게도 하나님께 등 돌린 채로 감사도 했다는 점이 희한합니다. 하나님께 등 돌렸으므로 불평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에도 등을 돌리고 있었다는 것인데 도대체 문제가 무엇일까요? 탐욕과 하나님께 등 돌림과 불평의 성분과 감사의 성분이 같다는 모든 말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 될 수 있을까요? 어제 말씀드린 5감관의 올바른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결과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그 성분이 탐욕이고 탐욕은 5감관을 잘못 사용할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5감관의 올바른 사용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생활화의 핵심이고 5감관의 기능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필요한 대상을 포착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총알이라면 내 몸의 5감관은 총입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은 마음이 반응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가야하고, 내 눈으로 포착하는 대상에 대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총알 삼으셔서 그것을 보는 나를 총 삼으셔서 총알을 쏘게 되는 것입니다. 5감관은 하나님의 뜻의 총알이 발사되기 위한 목표물 포착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가 5감관으로 포착하는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고 판단하고 대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요새 새벽 3시만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새벽 3시 40분쯤에 일어나는데 3시만 되면 자꾸 깹니다. 더워서 문을 열어놓고 자는데 3시만 되면 아파트 아래에서 트럭이 20분간을 시동을 걸고 있는데 디젤 트럭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거기에 문을 열었다 닫았다하고 뒤의 냉동고에 물건을 넣었다 뺐다하면서 20분 이상을 드르렁 거립니다. 이때에 우리의 눈과 귀가 새벽잠을 깨우는 트럭을 바라보는데 선민이라면 우리 눈이 보는 대로 반응하

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든 반응할 수 있지만 선민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그 소리가 들려서 잠이 방해받는 상황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몸이 트럭에 시달리는 상황과는 분리되어서 생명싸개 안에 우리 마음이 들어가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 때에 이 트럭과 운전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아 맞아 죽으면서 피부로 느껴지는 아픔에 대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보이므로 마음이 하늘로 가버립니다.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의 총알을 쏴버립니다. 그 총알이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로 나오게 됩니다.

이 5감관이 이렇게 활용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닿는 것이 탐욕인데 귀에 들리는 대로 내 마음이 가서 닿습니다. 내 입이 먹고 싶은 대로 가서 닿습니다. 피부가 닿는 대로 마음이 반응합니다. 탐욕은 나의 마음이 분수 이상의 것을 욕구하는 것입니다. 결코 내 마음이 닿으면 안 되는 것에 가서 닿는 상태가 탐욕입니다. 내 육체의 5감관을 통해서 이 땅의 대상을 향해서 내 마음이 향하고 닿는 것이 탐욕입니다. 탐욕은 5감관을 통해 만나는 대상에게 내 마음이 향하는 것이고, 가서 닿을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불평이고 하나는 감사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판단 기준을 따라 잘 되면 감사가 나오고, 못 되면 불평이 나오는데 문제는 성분이 똑같은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올 만큼 세상일이 잘 될 때도 마음이 거기에 가서 닿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가서 닿는 것이 탐욕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닿아도 탐욕이 아닌 본래의 내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5감관을 통해 만나는 어떤 것에라도 마음이 닿았을 때에 그 일이 잘되어서 감사를 해도 그 감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고 이 세상 잘 되는 일에 마음이 붙어서 드리는 감사는 탐욕을 성분으로 하고 있어서 원망과 불평의 성분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것으로 주어져서 내 마음이 닿아야 하고 닿아야만 하는 대상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제 홍해를 건넜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석서들은 ‘이런 전대미문의 놀라운 출애굽 열 재앙의 기적과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를 건넌 역사적 사실을 이스라엘이 잊고 불평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시간을 재면 이제 13개월이 지났습니다. 250만 이스라엘 세 살 이상은 이 출애굽과 홍해 도하의 대 기적을 잊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원망은 오히려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적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모든 불평의 시작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로 들어와서 이 모양이 되게 하였느냐'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했던 사건이 모든 불평의 첫 머리가 됩니다. 그때에는 미리암과 모세가 부르는 감사의 노래를 따라 250만 명이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든 불평의 시간대마다 왜 출애굽을 시켰고 왜 홍해를 건너게 했느냐고 불평을 하는데 감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곤혹스러운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이 상황이 나아질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겨내자'는 말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에 익고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5감관으로 접촉하여 느낄 수 있는 이 세상 상황이 좋을 때 하는 감사는 탐욕으로 탐욕을 성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과 홍해 도하 때에는 감사하지 말았어야 했느냐? 감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출애굽 열 재앙 사건이 일어났는데 5감관으로 느낄 수 있는 내 삶의 형편이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해방시키는 과정 중에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내가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 된 나의 상황에 초점을 맞춘 감사가 아니라, 그러한 나의 상황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감사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요6:26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하십니다. 표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은 내 배고픈 상황을 채워주셨다는 점에서 좋아하고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좇았어야 한다는 것인데 떡을 향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좇았습니다.
홍해 도하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로부터 내 지상에서의 목숨이 연장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감사는 탐욕으로 내 마음이 닿아서는 안 될 것에 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이 땅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5감관으로 느낄 수 있는 세상 형편이 하나님 때문에 앞으로 나아질 수 있으므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불평분자적 체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감사할 때조차도 불평적 요소 탐욕적 요소가 들어있는 악한 감사를 하는 체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로 내모신 것이었습니다. 광야생활은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한 마디로 불평의 원산지와 같은 곳으로 불평 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광야에 데리고 나가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나로 하여금 모든 불평의 계기들에 대해서 다 죽어버리고, 마음이 본래의 것으로 정해진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5감관으로 접하는 광야의 상황에 마음이 닿는 것은 탐욕으로 내 것으로 허락되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도 몸도 아내도 남편도 사업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자꾸 거기에 닿으므로 탐욕이 됩니다. 닿으면서 감사하고 닿으면서 불평하니 감사가 더 나쁩니다. 마치 남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며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 좋아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잘 되니 기뻐합니다. 하나님 말고 돈 잘 버는 것을 기뻐하니 얼마나 악합니까? 돈이 안 벌렸다고 불평하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악한 감사를 그냥 놔두신 것은 율법이나 제사법도 주어지지 않았고 법궤도 없었을 때였기에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특별히 성막을 준비하시고 체질을 바꾸시려고 하셨습니다. 이 체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마다 세상일이 잘 됐다고 해서 감사가 나올 때마다 탐욕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고, 세상적인 감사나 불평을 이끌어 내는 모든 것들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주님의 동선을 따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마음을 계속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만족스러워 질 때에 5감관으로 포착된 모든 대상들에 관한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총알이 되어서, 5감관을 갖고 있는 내 몸을 총 삼아 발사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닿는 것이 아니라 5감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닿아야 하나님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체질이 불평분자인 우리들이 하는 모든 감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던 것인가를 기억하며 몸서리치는 회개를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에 박차를 가하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불평분자로서의 체질이 개선되어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가 생활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